

#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나리오 분야

<b>작품 제목</b>	부정부패 지우개
<b>주요 등장 인물 소개</b>	
<b>이름</b>	<b>소개</b>
김영민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말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믿는 주민센터 공무원
박철수	영민의 주민센터 동료
노인	공무원을 불신하는 악성민원인
할머니	마법의 지우개를 영민에게 건네 준 신비한 할머니
<b>시놉시스</b>	
※ 기승전결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서술	
<p>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꿈꾸는 주민센터 2년차 공무원 김영민. 그는 오늘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있다. 처음 이곳에 전입 왔을 때부터 난리였던 그 노인(악성 민원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공무원을 불신한다. 오늘도 노인은 뉴스에 부정부패 사건이 나왔다는 이유로 영민에게 물벼락을 뿌린다.</p> <p>재수 없던 그날, 퇴근하던 영민은 어떤 나물 파는 할머니를 만난다. 나물을 사드렸더니, 고마우셨는지 할머니는 마법의 지우개를 영민에게 건넨다. 다음날, 영민은 우연하게 지우개의 능력을 확인한다. 종이에 부정부패 사건을 쓰고 마법의 지우개로 지웠더니 그 사건은 애초에 발생조차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감탄을 금치 못하던 와중 악성 민원인 노인이 다시 센터에 등장한다. 또다시 공무원을 모욕하는 노인에게 화가 난 영민은 노인에게 내기를 제안한다. 한 달간 공무원 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노인이 다시는 진상 짓 하지 않기로, 사건이 일어난다면 영민이 옷을 벗기로. 노인은 껄껄 껄 웃으며 내기를 승낙했고 각서까지 쓴다.</p> <p>영민은 29일간 뉴스에 흘러나오는 모든 공무원 비리 사건을 지웠다. 내친 김에 과거의 공무원 비리 사건도 없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공직사회로 청렴하게 인식하도록 말이다. 그렇게 3년간의 부정부패 사건을 지웠더니, 공무원 위상이 끝을 모르고 올라간다. K-공무원이 대세가 되었고, 청소년 인기 직업으로 유튜버를 제치고 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김태희 닮은 의사가 공무원인 영민과 선을 보고 싶어서 난리다. 청렴의 위력이 이 정도인가 싶은 그때, 동료직원에게 의해 마법의 지우개를 잃어버리고 만다.</p> <p>아직 내기 종료까지 하루가 남았다. 뉴스에서는 부정부패 뉴스가 흘러나온다. 다급해진 영민. 그는 다시 할머니를 찾았다. 마법의 지우개를 다시 달라하는 영민에게 할머니는 깨달음을 준다. “자네는 대한민국이 정말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나?” 부끄러워진 영민이는 찾기로 했다. 마법의 지우개를 쓰지 않고 대한민국을 진짜 청렴하게 만들 방법을.</p> <p>영민은 방송국을 찾아가 공무원의 높아진 위상을 이용해 대국민 연설을 한다. 그리고 그 방송에 감화된 노인이 내기를 기권하면서 내기는 영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p>	

## 시나리오 본문

### S#1. 주민센터 안.

대기석 쪽 텔레비전 뉴스에서 세금 5억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소식을 전한다.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눈이 일제히 텔레비전을 향한다.

수군대는 사람들, 한 노인은 혀를 꼰꼰 차며 욕까지 해댄다.

공무원인 철수와 영민은 나란히 앉아있고, 컴퓨터로 서류 작성 중 같이 뉴스를 듣는다.

철수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영민 뭐가?

철수 지금 나오는 뉴스 말이야. 공무원이란 양반이 왜 세금을 횡령하냐고.

영민 예휴, 신경 끄는 게 상책이야.

철수 (어이없다는 듯이) 야, 저런 일 하나가 우리 공무원 이미지를 얼마나 깎아먹는데.

영민 알지. 저기 저 앞에 계신 어르신도 공무원 엄청 불신하는 걸.

철수 (어르신을 쳐다보며) 아 저분? 그래. 비리 사건 하나 터질수록 저런 분이 늘어나는 거라고.

영민 맞는 말이야. 근데 말이야.

철수 응?

영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린 고작 말단 공무원일 뿐인데.

철수 (영민을 쳐다보며)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영민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기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 어르신 불평불만 듣는 것뿐이고, 방법은 높으신 분들께서 찾을 일이지.

철수 어르신?

철수가 앞을 바라보니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이는 한 노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노인, 철수 앞에 선다.

노인 어떻게 생각하셔?

철수 네? 저 저요?

노인 네, 녀요. 이 양반아. 방금 뉴스 못 봤어? 어떤 쌍놈의 공무원이 말이야.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벌여 낸 세금을 홀라당 먹어버렸다잖어.

철수 아 예. 같은 공무원으로써 정말 죄송함...

노인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까워! 세금이! 우리나라 공무원이란 놈들은 이래서 안 돼. 세금이 무슨 음료수야? 쪽쪽 빨아먹게?

철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 왜 그럴...

영민 (철수에게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참나, 할아버지는 세금 안 내시면서.

철수 씯!

영민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받아먹었어? 왜 우리한테 그러는데?

철수 제발 조용해.

노인 (못 들은 듯) 공무원은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여.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니까네, 무조건 청렴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니들 월급, 누구한테서 나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거!

영민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놀면서 법니까? 월급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지.

철수 제발 그만해.

영민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 귀 어두워서 안 들려.  
 노인 다 들린다. 이눔아! 아까부터 딱박딱박 말대답... 무슨 말 하나 지켜봤더니. 뭐? 세금을 안 내?  
 내가 소싯적에 낸 세금이 얼마인데!  
 영민 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 일루 나와!  
 철수 (다급하게 일어서다) 선, 선생님.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희가 번호표 없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무슨 일로... 왔냐고?  
 철수 예, 말씀만 하세요.  
 노인 이러려고 왔다 이 세금 도둑들아! (들고 있던 물을 철수와 영민에게 뿌린다.)  
 철수 (영민과 함께) 으악!  
 노인 내가 니들 다 민원 처넣을 것이여! 오늘 센터 문 닫을 때까지 나랑 한 번 해 보자고!  
 철수 (울먹이며) 아이 할아버지!

S#2. 주민센터 앞.

해가 누엣누엣 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영민이와 철수가 퇴근하기 위해 주민센터 문을 나선다.  
 철수의 눈에 무거워진 영민의 어깨가 보인다.

철수 어깨 펴 임마. 잘 사과 드렸으니 별 일 없을 거야.  
 영민 억울해.  
 철수 뭐가 억울한데?  
 영민 비리 저지른 건 개들인데, 왜 죄 없는 우리까지 당해야 하는 건데.  
 철수 그게 국민들의 인식이야. 공무원들은 다 똑같다고.  
 영민 어우. 비리 저지르는 놈들은 사형. 이런 법 안 만들어지냐? 처벌 무서워서 비리 못 지르도록 말이야.  
 철수 법으로만 막는다고 될까싶다. 청렴한 마음이 깃들어야 진짜 청렴이지.  
 영민 어우, 꿈같은 소리 그만해. 부정부패 사건만 안 일어나면 알아서 청렴해지는 거지,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거야.  
 철수 방법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청렴해지겠다는 마음 없이는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 같진 않아.  
 영민 철수야.  
 철수 응?  
 영민 내 공직생활 목표가 뭔지 아냐?  
 철수 뭔데?  
 영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거.  
 철수 진짜로? 의원데?  
 영민 내가 자꾸 네 말 부정하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난 제발 공무원들이 청렴해져서 오늘 같은 물벼락도 안 맞고, 같은 공무원이란 이유로 욕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  
 철수 오늘 좀 심하긴 했지.  
 영민 이게 다 비리 저지르는 놈들이랑 부정부패 사건들 때문이라니까? 내가 고위직만 돼 봐. 뿌리까지 뽑아낼 거니까.  
 철수 킁킁. 알았어. 나 간다. 내일 보자.  
 영민 오케이 바이바이.

영민, 철수를 헤어지고 집에 가려 몸을 돌리는데 바로 앞에 나물 파는 할머니가 나타난다. 할머니는 영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다.

영민 이상하다. 아까 계셨나? 처음 보는 분인데... 할머니! 여기 주민센터 끝나면 사람 잘 안다니는 길이에요.

반응이 없는 할머니. 영민은 할머니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아, 수북이 쌓인 나물을 본다.

영민 예고, 오늘 집 못 들어가시겠네. 여기가 장사하기엔 터가 안 좋아요. 나물 얼마예요?

할머니 한 봉지 4천 원.

영민 진짜 싸다. 잠시만요. (지갑을 뒤적거린다) 4봉지 다 주세요. 나물 참 싱싱해 보이네.

아, 제가 만 원 짜리 밖에 없는데 혹시 천 원짜리 있으세요? 없으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할머니 잔돈 가져가.

영민 아 있으세요? 안 주셔도 괜찮은데. 자, 여기 2만 원이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나물 4봉지를 검은 봉지에 담고 영민에게서 돈을 받는다.

할머니 (2만 원을 쳐다보며) 천 원짜리 없어...

영민 아 그럼 괜찮아요.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 생각나고 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됐어. 잔돈 가져가.

영민 예? 아까 천 원짜리 없으시다고.

할머니 천 원짜리 없어. 대신.

영민 대신?

할머니 이거 가져가. (지우개를 건넨다)

영민 앵? 이게 뭐예요? 지우개? (할머니께 다시 드리며) 아이 괜찮아요. 저 연필 쓸 일 없어요.

할머니 손자 주세요.

할머니 그걸 지우는 게 아니야.

영민 예? 그럼 뭘 지워요?

할머니 네가 지우고 싶은 것.

영민 제가 지우고 싶은 거요?

할머니 그래, 네가 지우고 싶은 것. 지우고 싶은 걸 연필로 적고 그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져.

영민 음... 원래 지우개가 그런 용도 아니에요?

할머니 멍청하긴!

영민 예?

할머니 네가 연필로 쓴 그 일,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진다고.

영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다뇨. 이게 뭐 마법의 지우개다 이거예요?

무슨 해리포터처럼?

할머니 해리포터인지 해리포터인지 그 양반이 뭐하는 양반인지는 모르겠고, 좋은 일에 쓰도록 해.

(약 올리듯이) 시골에 계신 우리 손자 같아서 주는 거니까.

영민 그게 무슨 말씀...

나물을 다 판 할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떠나버린다. 그 모습을 영민은 멍하니 바라본다. 영민의 손에는 나물과 지우개가 들려있다.

영민 (지우개를 자세히 보며) 마법의 지우개라고?

S#3. 주민센터 안.

다음날 아침, 주민센터. 철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고 영민은 이제 막 출근한다.

영민 좋은 아침.

철수 (속삭이며) 영민아. 큰일 났어. 빨리 와 봐.

영민 응? 무슨 일인데?

철수 (손짓하며) 빨리.

영민 뭔데?

철수 (속삭이며) 우리 센터장님이 말이야... 뇌물을 받으셨대.

영민 (큰소리로) 뭐라고? 센터장님이?

철수 (속삭이며) 조용히 말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영민 자세히 말해 봐. 이거 팩트야, 소문이야?

철수 팩트야. 시청 감찰팀에 있는 내 친구한테 연락받았어. 곧 감사 틀 거라더라.

영민 잠깐만. 센터장님이 감사받는다면 우리도...?

철수 센터 직원 모두를 뒤져보겠지. 같이 돈 받은 거 있나.

영민 어우, 또 비리 공무원 때문에 우리만 피해보네. 대체 누구한테 돈 받은 거야?

철수 이거 내막이 또 골 때리더라고. 들어봐.

철수가 자세히 말해주려던 그때, 한 주민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온다. 눈치를 보는 영민과 철수. 사정을 모르는 다른 직원들의 눈치도 보인다.

철수 기다려봐. 내가 적어서 알려줄게

영민 그래.

영민,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간다. 종이에 연필로 열심히 휘갈기는 철수. 얼마 안 가 영민에게 그 종이를 획 던진다. 확인하는 영민, 표정이 더욱 심각해진다. 그런데 무언가 영민의 눈에 띈다.

영민 야, 잠깐만 이거 결재서류잖아.

철수 뭐? 정말? 급하게 쓰다 보니. 아아, 그거 연필로 쓴 거야. 너 지우개 있어?

영민 덤병대긴.

영민이 어제 받은 지우개를 찾아 주머니를 뒤진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영민 앞을 지나간다. 영민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확인한다. 앞에는 센터장이 직원들을 향해 서 있다.

센터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흘쩍인다) 여러분...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문 밖을 나선다)

철수 결국 직위해제 되셨나보네.

영민 비리 공무원의 비참한 말로지.  
철수 자식들 이제야 대학 간다는데 어떡하시나?  
영민 누굴 걱정하는 거야. 이제 곧 감찰 뜬다며. 준비는 다 됐어?  
철수 무슨 준비?  
영민 감찰팀이 절대 돈 받은 것만 확인하지 않을 거야. 다른 건수도 있나 살살이 뒤져보겠지.  
너 영수증 처리해야 할 거 다 해놨어?  
철수 아 맞네. 빠진 거 있나 확인해봐야겠다.  
영민 그래. 한 번 썩 다 봐봐.

영민, 착잡한 얼굴로 주머니에 있던 지우개를 꺼내 아까 결재서류에 적힌 글씨를 지운다.

영민 (혼잣말로) 제발 부정부패들 좀 없어져 버려라. 악성 민원인한테 욕 안 먹고, 공무원 인식도 좋아지게 또, 감찰 같은 것도 안 당하게!

영민, 글자를 모두 지우고 철수에게 결재서류를 건네준다.

영민 자, 여기.  
철수 내 결재서류는 또 언제 가져갔어?  
영민 뭘 소리야. 아까 네가 실수로 결재서류에 글자 써서 지워줬잖아.  
철수 내가? 내가 바보도 아니고 결재서류에 왜 낙서를 하겠어.  
영민 그새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아님 진짜 바보가 되신 건가?

그때, 센터장이 주민센터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온다.

철수 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차가 좀 많이 막혔죠?  
센터장 아니 뭘 차가 이리 밀려? 피난길인 줄 알았다니까.  
철수 하하! 금요일 아침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겨우 왔습니다.  
센터장 그래, 별 일은 없었고?  
철수 넵, 이상 무입니다!  
센터장 좋아, 오늘도 다들 잘 해보자고. (자리로 돌아간다)  
철수 화이팅입니다!  
영민 (병 찢 채, 속삭이며) 이게 무슨 일이야?  
철수 뭐가?  
영민 (속삭이며) 센터장님 말이야. 뇌물 받으셔서 좀 전에 직위해제 되셨잖아.  
철수 (큰소리로) 무슨 소리야? 언제?!  
영민 (속삭이며) 쏙! 조용히 말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철수 (속삭이며) 아 미안미안. 그래서 그게 뭘 말이야. 센터장님께서 뇌물을 받으셨다니?  
이거 소문이야 팩트야? 나 감찰팀에 아는 사람 있는데 한 번 물어볼까?

영민, 철수를 어이없다는 얼굴로 이곳이 바라본다. 거짓말처럼은 안 보이는 순진무구한 철수의 표정.

영민 어... 소문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야.

철수 그럼?

영민 꿈꿨나보다. 미안.

철수 너 이러기야? 빨리 알려줘.

영민 이따 얘기해.

영민,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을 한 철수를 뒤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

영민 (지우개를 쥐고 바라보며) 혹시... 정말로?

영민, 포털 사이트에 횡령을 검색한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공무원 횡령 사건이 나온다.

영민 (연필로 적으며) 2023년 5월 30일 한 관세청 공무원이 국세 5억을 횡령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영민, 다 적고 비장한 얼굴로 지우개를 한번 주시하더니 아까 쓴 글을 지운다. 다 지우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본다. 화면엔 '알 수 없는 페이지'라는 문구가 떠 있다.

영민 알 수 없는 페이지... 말도 안 돼.

영민, 다시 횡령을 검색한다. 좀 전까지 도배되었던 5억 횡령 기사가 깡그리 사라져있다. 열심히 스크롤을 내리는 영민.

영민 없어... 없다고. 기사가 모두 사라졌어. 이게 진짜... 진짜 마법의 지우개란 말이야?

그때, 저번에 진상을 부리던 노인이 다시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온다. 노인, 철수에게 다가간다.

노인 안녕들 하신가? 비리 공무원 분들.

철수 (속삭이며) 이런, 또 오셨네.

영민은 지우개만 보고 있고 노인은 철수 앞에 선다. 철수, 잔뜩 긴장한 채 노인을 못 본 척 한다.

노인 (철수를 보며) 안녕?

철수 (공손하게) 아, 오셨어요? 오늘은 어떤 일로 방문하셨어요?

노인 내가 뭐 일이 있어야 오나? 여기 와서 에어컨 바람도 쐬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쓰고. 또!

철수 또?

노인 니들 감시하러 오는 거지. 니들이 내 세금 뺨땅치나 안 치나.

철수 (비굴하게) 그러셨구나. 맘껏 이용하시고 감시하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노인 (큰소리로) 도움!

철수 (놀라며) 깜짝아. 도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요?

노인 그래, 도움이 필요하다고.

철수 어떤 거요?

노인 잘 들어 봐. 내가 말이야. 이 지역 높으신 양반들하고 많이 친하걸랑. 어제도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었어. 근데 요 녀석들이 말하길, 요 주민센터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대?

철수 냄새? 무슨 냄새요?

노인 나 참.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비리 냄새 말이여 비리!

철수 네? 비리요?

영민 (비리 이야기에 그제야 노인을 바라본다)

노인 그래, 다 알고 왔으니까. 순순히 말해 봐. 니들. 뭐 돈 받은 거 있어?

철수 선생님 큰일 날 소리 하신다. 저희가 무슨 돈을 받아요.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영민 (표정이 점점 굳는다)

노인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전수조사 해봤어? 여기 직원들 주머니 싹 다 뒤져봤냐고. 똑똑히 들어.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것들은 말이여. 전~부 예비 범죄자들이여. 언제 돈 받고, 언제 비리 저지를지 모른다 이 말이여!

영민 (기가 찬단 듯이) 하!

노인 (영민을 째려보며) 뭐여? 방금 웃었어?

영민 예, 웃었습니다. 역시 귀하가 밝으시네요.

철수 (속삭이며) 야! 너 왜 그래?

노인 하, 요거요거 저번에도 그러더만 국민 알기를 뭐로 아나봐? 왜? 불만이여? 노친네가 귀 밝은 게?

영민 아뇨, 귀 밝으신 건 축하드리고요. 근데 아까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죠? 예비 범죄자들?

노인 그래! 예비 범죄자들이라고 했다! 티비만 틀었다하면 나오는 게 니들 부정부패 사건들이여. 들킨 것만 해도 그 정돈데, 실재론 얼마나 많을까 응? 여기 니들도 마찬가지야. 다 돈 받고! 비리 저지르고! 우리나라 공무원은 다 그래!

영민 아~ 다 그런다고요?

노인 그렇다니까!

영민 그럼 선생님 저랑 내기 하나 하실래요?

노인 뭐? 내기?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영민 아뇨. 전 진지합니다. 제 직업이라도 걸까요?

노인 뭐? 직업을 걸어? 하! 그까짓 말단 공무원직이 뭐라고. 그래, 말해봐. 내용이 뭔데?

영민 오늘부터 한 달간 뉴스에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전 공무원을 그만두겠습니다.

철수 야, 너 왜 이래. 미쳤어?

노인 그래, 네 친구 미친 것 같다

영민 대신! 부정부패 사건이 한 달간 나오지 않는다면 방금 한 말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여기서 진상 짓 하지 마시고요.

철수 (영민을 붙잡으며)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더위를 먹었나 봐요.

노인 놔 뒤! 너, 분명 장난이 아니렸다?

영민 예. 각서도 쓰시죠.

노인 허구한 날 나오는 게 공무원 부정부패 뉴스야. 후회하지 않겠어?

영민 선생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노인 크헛! 아주 패기 넘치는 바보로구만. 좋아. 내기를 받겠어. (철수를 가리키며) 너 봤지? 이 내기의 증인인거야.

철수 아니... 그게... 예...

노인 종이 갖고 와!



영민, 노인의 말을 듣자마자 A4용지 한 장을 들고 당당하게 노인 앞으로 걸어간다. 노인 앞 선반에 종이를 광하며 내리친다. 노인, 분노하며 각서를 작성한다. 서명과 지장을 찍는데 분노의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본다.

노인 한 달 뒤에 다시 오겠어. 두고 보자고!

영민 (노인이 떠나자 자리에 돌아간다. 연필과 종이, 그리고 마법의 지우개를 자리에 세팅한다.)

철수 너 대체 왜 그랬어. 더러워서 공무원 때려치우기로 한 거야?

영민 철수야, 우리가 예비 범죄자들이나?

철수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근데 넌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얘기했잖아. 그게 어디 우리만 잘해서 되는 거냐고.

영민 걱정 마. 내가 만들 거야. 부정부패 사건 하나 없는, 청렴 대한민국. 청렴 공직사회로. 내가 만들 거라고.

철수 아니 애가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네. 그걸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영민 (지우개를 높이 들며) 이 마법의 지우개로.

철수 너...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안타깝게 영민을 바라본다, 한참을 보다가 센터장에게 간다) 센터장님, 영민이가 이상합니다.

센터장 (영민을 한 번 쓱 보더니)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걸리는 정신병이야. 놔두면 괜찮아진다네.

철수 그러겠죠...?

영민 (혼잣말로) 두고 봐. 내가 과거 부정부패 사건까지 지워서, 비리 공무원이란 말이 속 들어가게 할 테니까.

영민, 열심히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지운다. 짹짹 초침이 흐르는 소리가 빠르게 들린다. 동시에 옆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뉴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초로,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 무발생 한 달 째 되는 날입니다. 여타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굉장히 놀라운 기록인데요.

영민, 계속해서 컴퓨터로 부정부패 사건을 검색하고, 지우개로 지운다. 반복하고 반복한다. 동시에 옆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뉴스 벌써 3개월째!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마법같이 사라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보기 좋게 빗겨가고 대한민국이 곧 청렴, 청렴이 곧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철수 뭘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영민 아우, 손 아파. 지금 몇 시야?

철수 2시. 어르신이랑 각서 쓴 이후로 5시간이나 그러고 있었어. 대체 뭐하는 거야. 아까부터 썼다 지웠다.

영민 철수야.

철수 응?

영민 대한민국 공무원이 비리 공무원이냐?

철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린 지금 부정부패 사건 무발생 3개월 차라는 전설의 기록을

갱신중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해.

영민 (씩 웃으며) 그렇지? 그게 다 이 형님 덕분이다 이거야.

철수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영민 뭘 소리아. 난 대한민국을 더욱더 청렴하게 만들려 갈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철수 (안쓰럽게 쳐다보며) 그래, 화이팅해라. 아, 영민아.

영민 응?

철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뭐든 도와줄게.

영민 (곰곰이 생각하다가 서류 뭉치를 건넨다) 그럼, 이것 좀 해줘라. 바빠서. 땡큐.

철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며) 아니, 이런 거 말고...

(한 마디 하려다가 결국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간다)

영민, 더욱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아까처럼 쓰고 지우길 반복한다. 동시에 옆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이번엔 밤낮 또한 계속해서 바뀐다.

뉴스 공무원 비리 사건이 사라진지 1년.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란 단어는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래 없는 청렴한 정부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뉴스 (장면전환) K팝? k드라마? 아니죠. 요즘 전 세계에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건

k-공무원입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뉴스 (장면전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어떤 직업인지 아시나요?

얼마 전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이 장래희망 순위 1위로...

뉴스 (장면전환)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공무원 비리가 3년 째 사라진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열띤 표정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있는데요. 청렴한 공무원의 월급을 2배 이상 올려달라는 요구를...

철수 영민아, 너 어르신이랑 내기 한 이후로 벌써 29일째 이려고 있어. 어디 글쓰기 공모전 나가니? 무슨 글을 쓰길래 한 달 내내 썼다 지웠다 하는 거야. 이거, 지우개 다 닳은 것 봐.

영민 철수야. 나 팔 좀 마사지해줘. 전완근이 부셔질 것 같아.

철수 (주물러주며) 눈 보라 눈. 다크서클이 턱 끝까지 내려왔어.

영민 아~ 시원하다. 대한민국 부정부패 지우느라 열중했더니 잠을 통 못 잤더니...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철수 바람을 쐬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지 않을까?

영민 응? 무슨 병원?

철수 (지긋이 바라보다가) 됐다. 다녀와.

영민 뭐지? 이 반응은? 암튼 쉬고 올게.

영민, 문 밖에 나서서 기지개를 핀다. 그때, 영민의 핸드폰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영민 어. 엄마.

엄마 영민아, 너 선볼래?

영민 응? 갑자기?

엄마 저번 주부터 공무원 아들 소개 좀 시켜달라고 여기저기서 난리야. 너 옆집 한결이네

엄마 알지? 그 분 친언니의 딸이 의산데, 너 좀 소개시켜 달라고 난리래. 그 분이 사진도

보내줬거든? 아주 그냥 김태희 뺨을 쳐. 어때? 나갈 거지?

영민 김태희 뺨치는 외모의 의사가 날 왜...?

엄마 으이그, 요즘 결혼 1순위가 공무원인거 몰라? 내 아들 데려가려면 의사정돈 돼야지.

영민 일단 알았어. 끊어봐.

엄마 그래, 그럼 한다고 한다? 끊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영민 아니 그건 아니고...

뚝 전화가 끊긴다. 영민, 멍 때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따르릉하고 울린다.

영민 여보세요?

혜진 어... 나야.

영민 누구시죠?

혜진 내 번호 지웠나보구나. 나 혜진이.

영민 혜진이? 내가 왜?

혜진 이제 와서 미안한데,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영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차놓고.

혜진 그땐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이젠 반대 안 해. 오히려 다시 너 잡으라고 난리시더라.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부탁이야. 우리 좋았었잖아.

영민 잠, 잠깐만. 이따가 다시 전화하자. 머리 아프다.

혜진 아, 미안. 너무 갑작스러웠지? 내가 다시 전화할게.

영민 그래.

영민, 전화를 끊고 들어와, 자리에 다시 앉는다.

영민 이 정도로 공무원 위상이 높아질 줄이야. 어? 뭐야. 내 지우개 어디 갔어? (열심히 뒤져본다)

철수 형님이 지우개 하나 사줬다.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거 샀으니까 그걸로 열심히 지워 봐.

영민 뭐? 원래 있던 거는?!

철수 그 짜리몽땅한 거? 버렸지.

영민 그걸 누구 맘대로 버려!

철수 깜짝아. 야! 그 집기도 힘든 지우개 버린 게 어때서. 지우개가 무슨 할머니 유품이라도 돼?

영민 됐고, 어디에 버렸어?

철수 쓰레기통에. 새 거 사줘도 난리야.

영민, 황급히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본다. 안은 깨끗이 비워져있다.

철수 아까 청소 아주머니가 비우시더라. 대체 그 지우개가 뭔데?

영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간다. 분리수거장을 확인했지만 아무 것도 없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차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영민 안 돼... 안 돼... 내기까지 아직 하루가 남았단 말이야!

저 멀리 전광판에서 공무원 비리뉴스가 흘러나온다.

영민 할머니, 할머니를 찾아야 돼. 할머니! 할머니!

이리저리 할머니를 찾아다니는 영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분명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던 곳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 나물사려고?

영민 아악! 언제부터 계셨어요?

할머니 난 계속 여기 있었단다.

영민 네?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나물 다 주세요. 여기 5만 원. 잔돈도 다 가지시고요.  
(5만원 지폐 한 장을 건넨다) 그리고 그 마법의 지우개도 주세요.

할머니 지우개? 아직도 지워야 할 게 남았느냐?

영민 예.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어서 주세요. 빨리요.

할머니 뭘 지우기에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건가?

영민 부정부패요!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 부정부패를 모조리 지워버렸어요. 대한민국을 청렴한 국가로 만들었다고요.

할머니 (고개를 가우뚱하며) 글썄, 정말 청렴해진 게 맞나?

영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멀리 전광판에서 공무원의 12억 횡령 비리 뉴스가 다시 흘러나온다. 영민, 눈동자가 흔들린다.

할머니 자네가 원하는 청렴이 저런 건가?

영민 그래도 사건은 없어졌어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서 지우개를 주세요!

할머니 (영민을 물끄러미 보며) 하나 물어보겠네. 자네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 안 나길 원하는 건가, 공무원에게 부정한 마음이 생기지 않길 원하는 건가?

영민 그건...

할머니 사건뿐이야. 그 지우개가 지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네.  
자네는 대한민국을 청렴하게 만들지 않았어. 청렴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을 뿐이지.

할머니 평생 누군가의 비리를 지우개로 지우며 살고 싶은가? 그걸 원하나? 그렇다면 자, 여기 마법의 지우개네. (영민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지우개를 내민다)

영민 (지우개를 아련하게 쳐다본다) 물론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알맹이 없는 가짜 청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지우개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정을 저지르려는 마음은 대체 어떻게 지울 수 있는 거죠?

할머니 (나물을 정리하며) 묻지 말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 그 진지한 고민이 내가 받은 진짜 잔돈 값이니까. 지우개는 뭐랄까... 나물 팔아주면 주는 그냥 사은품이야.

영민 진지한 고민이라... 근데, 할머니는 대체 누구십니까?

할머니 (씩 웃으며) 글썄, 해리포터이라고 해 두지.

영민 해리포터요.

할머니 그래, 해리포터. 그나저나 안 늦었나? 내기는 내일까지야.

영민 전 졌어요. 이미 비리 사건이 터져버렸는걸요.

할머니 멍청하긴!

영민 예?

할머니 자네한테는 이미 지우개가 있지 않은가. 인간의 악한 마음을 지우는 강력한 지우개가.

영민 저한테요?

할머니 그래. 사람은 누구나 지우개를 갖고 있어. 단지, 그 사실을 모르고 가만있는 자와 그 사실을 알고 악한 마음을 지우려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있을 뿐인 거야.

영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에게도 지우개가 있나요?

할머니 고작 잔돈 4천 원에 영업비밀까지 달라하는구먼. 좋아. 마지막 힌트를 주지. 사람의 마음은 말이야. 사람으로 지우는 거야. 자네가 가진 그 지우개로 비리 공무원의 부정한 마음을 지워보게.

영민 사람으로 지운다라... 어려운데... (비리뉴스가 나오는 전광판을 보더니 깨달은 표정) 아!

할머니 (싱긋 웃으며) 알았으면 얼른 가게. 가서 지우고 와.

영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영민이 방송국을 향해 달린다. 방송국 입구에 도착해 공무원증을 보여주니 가볍게 통과한다. 이윽고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 도착한 영민.

스태프 누구십니까?

영민 아...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스태프 그러시군요. 어떤 일로 오셨죠?

영민 제가... 제가 전국의 공무원과 국민들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생방송을 하게 해주십시오.

스태프 네?

영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스태프 아니, 아무리 공무원이셔도 갑자기 찾아오셔서 생방송을 하시겠다뇨. 절대 안 됩니다.

영민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스태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멀리서 누군가 다가온다. 방송국 본부장이다.

본부장 무슨 일이지?

스태프 아니 글썄 이 분이 공무원이신데, 갑자기 생방송에 출연시켜 달라고 떼를 쓰시네요. 돌려보내겠습니다.

영민 (본부장을 애절하게 바라보며) 부탁드립니다. 들여보내 주세요!

본부장 (영민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고는) 흠... 들여보내 줘.

스태프 네? 본부장님! 이 분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방송사고 나면 저희 다 끝장입니다!

본부장 공무원이지잖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청렴하신 분들. 이 분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

영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뉴스 데스크 자리에 앉는다. 긴장한 듯,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자세를 잡으니, 앞에 영민을 잡고 있는 카메라에 불이 들어온다.

영민 안녕하세요. 국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울 행복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영민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년 간, 단 한 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늘 그렇듯 마법은 풀리고 꿈은 언젠가 깨어납니다.

영민 여러분은 그 꿈이 어떠셨나요. 달콤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영민 전 놀라웠습니다.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을 했다고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위상은 하늘을 찌렀으니깐요.

영민 어머니께선 저보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저를 보고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말단이고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청렴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저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달콤했지요. 하지만...

영민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은 3년이라는 시간이... 만약 우연이라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만약... 공무원의 청렴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청렴이 아니라 정말 공교롭게도 우연하게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어찌시겠습니까?

공무원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청렴하신가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청렴하신가요? 여러분은... 청렴한 마음을 갖기 위해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민 오늘 공무원 비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달콤한 마법이든, 놀라운 우연이든 간에 대한민국에 잠시 씩워진 청렴이란 콩깍지가 이제 벗겨졌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청렴 신화는 과연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영민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청렴이 가져다 줄 행복한 미래, 국민들께 존중받는 아름다운 공직사회를요.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나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나와 상관없는 없는 일이라고, 난 억울한 일이라고. 하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국민께서는 한 명, 한 명. 여러분을 포함한 100만의 공무원 개개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얼굴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영민 전 전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청렴해지는 방법을요.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신뢰할 방법을요.

영민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주민센터 안. 노인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온다. 영민은 포기한 듯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노인이 영민 앞에 선다.

노인 짐은 다 싸셨나?

영민 네. 인사도 다 드렸습니다.

노인 그래. 이쪽으로 나오시게.

영민, 자리에서 나와 노인 앞으로 다가간다. 노인, 각서를 영민에게 보여주더니 찢어 버린다.

영민 서, 선생님?

노인 방송 봤네. 인상적이더군.

영민 그래도... 제가 졌잖습니까.

노인 껄껄. 이봐. 자네가 지긴 왜 졌어?

영민 예?

노인 물론, 각서 내용으로서는 자네가 졌지만 말이야... (싱긋 웃으며) 내 마음을 돌렸지 않은가.

영민 (말을 하지 못한다)

노인 한 달간 부정부패 사건이 뉴스에 뜨지 않았더라도 난 대한민국 공무원을 믿지 않았을 거야.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비리를 저지를 놈들이라 믿었으니까 말이야. 실제로도 그랬고. 하지만, 자네가 나온 방송으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네.

영민 어떤?

노인 그래도 바뀔 생각과 의지는 있구나... 라는 걸 말이야. 그래서 난 자네를 믿어보기로 했네.

영민 선생님...

노인 승부에서는,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야. 톨로서 상대방을 이기거나, 아니면, (뜸을 들이더니 웃는다) 상대방이 기권하거나. 이 승부는 내가 기권하겠네. 자네가 이겼어. 부디 좋은 공무원이 되길 바라겠네.

영민 (울컥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처럼 떠난 할아버지는 불과 바로 다음날 센터를 찾아왔다. 다만, 진상으로서가 아닌 공무원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진 공무원 도우미로.

노인 할멈! 몇 번을 말혀! 절차가 있다고 절차가! 공무원이 전문간데 전문가 말을 믿어야지 막무가내로 요구한다고 이 분들이 그걸 해 줘? 공무가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노인 번호표는? 봐봐. 내 이럴 줄 알았어. 기본이야 기본! 번호표부터 뽑고 순서 기다리면 공무원 분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당장 뒤로 돌아가서 번호표부터 뽑아. 이 아지매야!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노인이 영민에게 캔커피를 건넨다.

영민 아이고 할아버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노인 내가 미안해서 그래 미안해서. 진상 놈들 상대해 보니까, 내가 했던 짓도 생각나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주는 걸세.

영민 네? 어떤 게요?

노인 국가에 헌신해줘서. 또 국민에게 봉사해줘서. 그리고 청렴하게 일 해줘서 말이야.

영민 (씩 웃는다) 제 의무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노인 옹? 나한테는 왜 고마운가?

영민 신뢰해주셔서요. (허리 숙여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청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노인 (영민을 보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독백 마법의 지우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부정부패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난 할아버지의 불신을 지워내는데 성공했다. 청렴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이 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티끌 하나 없는 공직사회는 마법 같은 환상에 불과하다. 어쩌면 진정한 청렴은,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난 적어도, 그런 세상을 꿈꾸고 싶다. 진실된 청렴한 마음으로 꽃 피워진 아름다운 공직사회를 말이다. 끝.